



2021년 지역별 건설시장 전망 3.

- '20년 역대 최대 수주실적을 기록한 중남미(Latin America) -

2021. 1.21

정지훈 책임연구원

Contents

1 중남미 주요 국가별 경제 및 건설시장 전망(요약)

- 1) 중남미 주요국 건설시장 In Depth Analysis
- 2) 브라질 등 주요 6개국 건설시장 전망(요약)

2 브라질 등 주요국의 경제지표, 공종별 시장, 리스크 등

- 1) 브라질
- 2) 멕시코
- 3) 콜롬비아
- 4) 칠레
- 5) 파나마
- 6) 페루



Part 1.

중남미 주요 국가별 경제 및 건설시장 전망

1) 중남미 주요국 건설시장 In Depth Analysis

(주요국 건설시장 In Depth Analysis) 국가별 총 4가지 항목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해당 시장의 성장성, 리스크 등을 평가, 분석하여 우리 기업의 시장 분석시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지원

(항목별 분석 기준)

1. Economic Risk('21년 경제성장률)

평가	기준
Positive	If '21년 경제성장률>0%
Negative	If '21년 경제성장률<0%

2. Pipeline Size(GDP 대비 건설시장규모 비중)

평가	기준
Positive	If GDP 대비 건설시장규모 비중>10%
Neutral	If 5%< GDP 대비 건설시장규모 비중<10%
Negative	If GDP 대비 건설시장규모 비중<5%

3. Risk Assessment(단기, 장기 Risk Score)

평가	기준
Positive	If 단기, 장기 Score < 세계 평균 단기, 장기 Score(8.9, 6.1)
Neutral	If 단기, 장기 Score, 2개 항목 중 하나 > 세계 평균 단기, 장기 Score
Negative	If 단기, 장기 Score> 세계 평균 단기, 장기 Score

4. 수주 기여도(최근 10년 평균 수주 비중)

평가	기준
Positive	If 최근 10년 평균 수주 비중>3%
Neutral	If 1%<최근 10년 평균 수주 비중<3%
Negative	If 최근 10년 평균 수주 비중<1%

2) 중남미 주요국 건설시장 In Depth Analysis

(분석결과 요약)

구분	Economic Risk (‘20, ‘21년 경제성장률)	Pipeline Size (GDP 대비 건설시장규모 비중)	Risk Assessment (단기, 장기 Score)	수주 기여도 (최근 10년 평균 수주 비중)	2021년 시장규모	2021년 성장률	CAGR (‘17~‘21)
브라질	Positive (-7.0%, 3.8%)	Neutral (8.0%)	Positive (5.2, 4.9)	Neutral (1.4%)	1,343억불	12.8 %	-6.8%
멕시코	Positive (-9.9%, 5.5%)	Positive (10.0%)	Positive (7.6, 6.0)	Neutral (1.4%)	1,154억불	4.5 %	-5.4 %
콜롬비아	Positive (-8.0%, 4.4%)	Positive (14.0%)	Positive (3.6, 3.5)	Negative (0.1%)	428 억불	7.2%	-6.1 %
칠레	Positive (-8.5%, 3.9%)	Positive (13.0%)	Positive (3.4, 3.2)	Neutral (1.0%)	340 억불	7.2 %	-3.5 %
파나마	Positive (-7.0%, 4.2%)	Positive (57.0%)	Positive (4.1, 4.1)	Negative (0.9%)	351 억불	3.2 %	1.2 %
페루	Positive (-14.1%, 7.1%)	Positive (12.0%)	Positive (4.1, 4.0)	Negative (0.1%)	246 억불	2.7 %	-2.2 %

[출처 : IMF, OECD, IHS Markit 등 자료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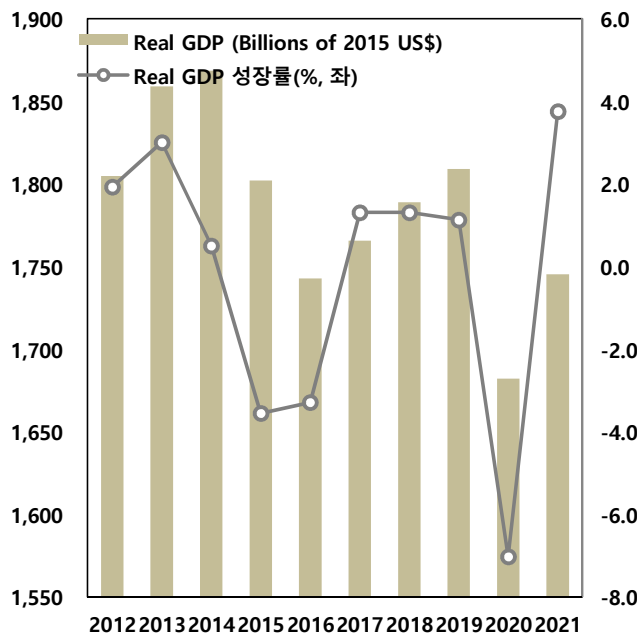
Part 2.

브라질 등 주요국의 경제지표, 공종별 시장, 리스크 등

(경제) '20년 7%대 역성장, '21년 3%후반대의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한 소비 증가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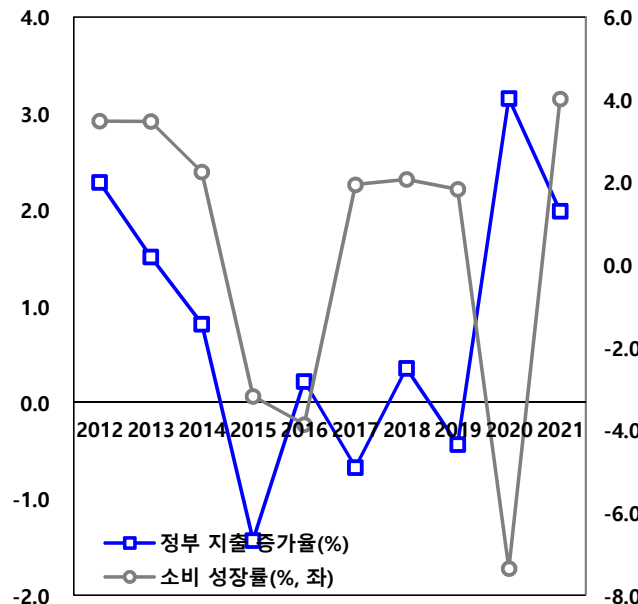
-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경기 침체 영향으로 '20년 GDP 성장률은 -7.0%로 떨어졌으며, '21년에는 3.8%로 반등할 전망
- 정부 지출 성장률은 '21년 2.0%, 소비 성장률은 4.0%로 반등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소비 여력이 회복될 전망
- 고정 투자 성장률은 코로나19로 '20년 -14.4%를 기록할 전망. '21년에는 0.3%로 경제 회복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실업률은 11.7%로 예상됨

생산 지표(Real GDP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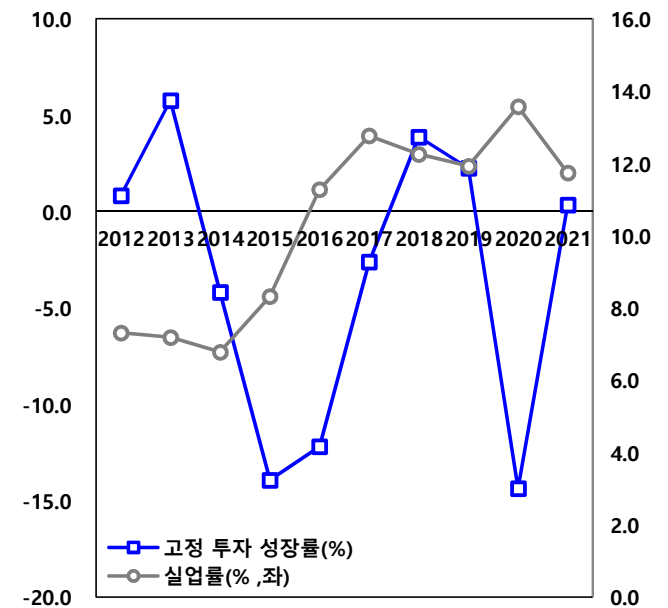
[출처 : IMF, OECD, IHS Markit 등 자료 종합]

정부 지출 증가율 및 소비 성장률



[출처 : IMF, OECD, IHS Markit 등 자료 종합]

고정 투자 성장률 및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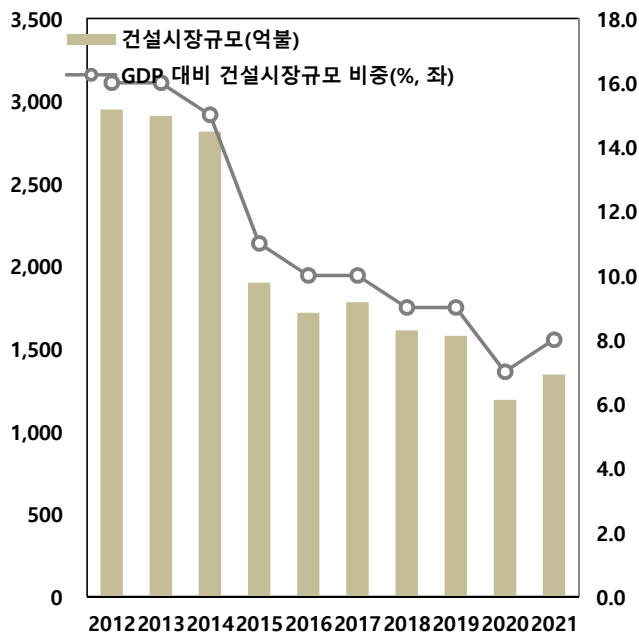
[출처 : IMF, OECD, IHS Markit 등 자료 종합]

브라질. Pipeline Size

(건설시장규모) 최근 10년간 GDP 대비 건설시장 비중 감소세(15→10→8%), '21년 1,343억불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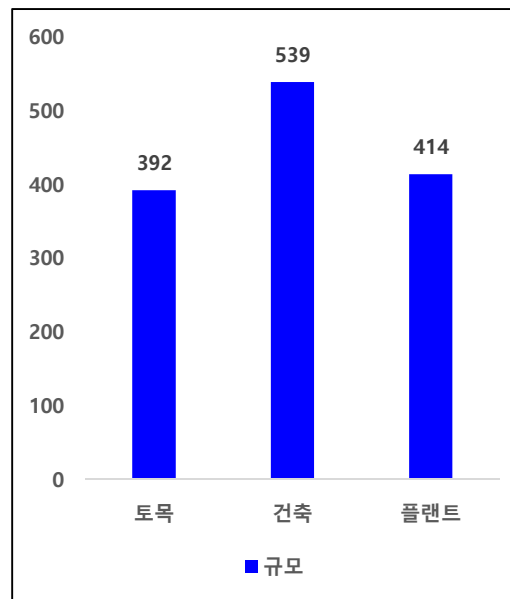
- 정치 리스크 및 경기 침체 영향으로 '12년 2,948억불 수준이던 건설시장규모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단, '21년에는 '20년 1,191억불 대비 12.8% 증가한 1343억불로 성장 기대
- 주거용 건물 등 건축이 539억불(40.1%), 발전 등 플랜트 414억불(30.8%), 교통 등 토목이 392억불(29.1%)의 규모가 예상
- 건설시장의 성장 동력(driver) 중 하나인 인구는 2012년 대비 7.4% 증가한 214백만명이며, 도시화율도 87% 수준으로 향후 지속 증가가 예상됨

GDP 대비 건설시장규모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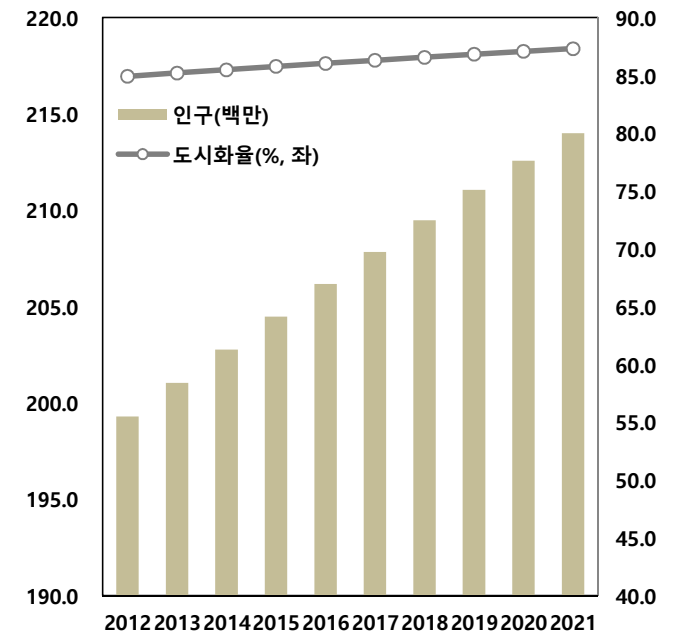
[출처 : IMF, OECD, IHS Markit 등 자료 종합]

주요 공종별 건설시장규모



[출처 : IMF, OECD, IHS Markit 등 자료 종합]

인구수 및 도시화율 (Construction Drivers)



[출처 : IMF, OECD, IHS Markit 등 자료 종합]

(공종별 건설시장규모 추이)

[단위 : 억불]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토목	964	1,095	1,085	654	514	596	483	480	352	392
교통인프라	786	887	895	534	417	491	394	391	280	312
수처리	178	208	190	120	97	105	89	89	72	80
건축	1,165	1,147	1,109	739	666	697	619	615	467	539
주거용	730	707	682	448	403	417	376	364	279	318
오피스	88	85	85	60	54	57	49	45	35	36
상업시설	87	88	85	53	46	51	43	45	32	38
공공시설	260	267	257	178	163	172	151	161	121	147
플랜트	819	669	625	508	537	488	510	484	371	414
에너지	652	516	481	413	447	399	416	401	309	345
유틸리티	20	15	13	12	13	14	14	13	11	12
통신	14	13	11	7	6	6	5	4	3	4
정유시설	42	43	40	24	17	14	28	23	16	18
교통장비 등	15	13	13	9	8	7	6	6	4	5
화학시설	13	12	14	8	8	13	8	7	5	5
전기	4	3	3	2	2	2	2	2	1	1
음식료 공장	21	21	20	13	14	14	14	13	11	12
기타	38	33	30	20	22	19	17	15	11	12
총 시장규모	2,948	2,909	2,815	1,901	1,717	1,781	1,611	1,578	1,191	1,3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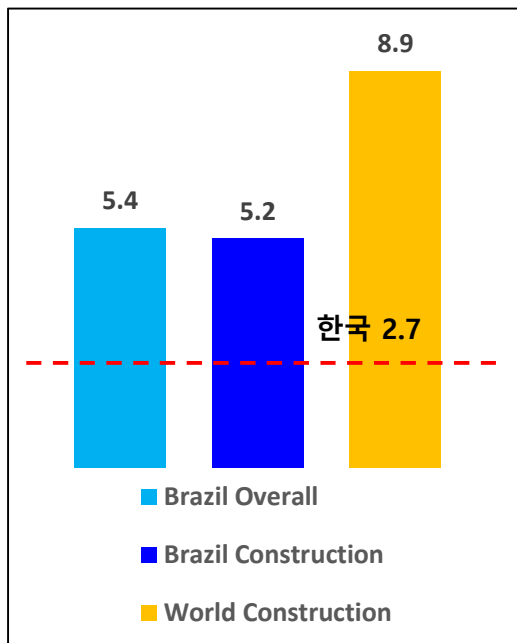
[출처 : IHS Markit, ICAK 등 자료 종합]

브라질. Risk assessment

단기, 중기 측면에서 Risk Score는 양호하나, 언어 등 문화 차이, 현지 및 스페인 기업의 경쟁력에 대한 준비가 절실한 시장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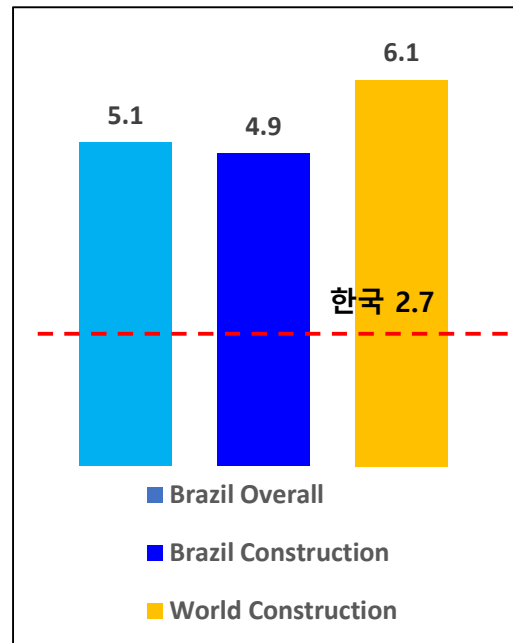
- 단기(12개월) Risk Score는 5.2로 세계건설시장(8.9)보다 양호한 수준
- 중기(5년) Risk Score는 4.9로 세계건설시장(6.1)보다 양호한 수준
- 최근 10년간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를 보면,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21년에는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가 2.3% 수준 전망(한국의 '21년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 전망치는 3.9%)
- GDP 대비 외채(Total Foreign Debt) 비중은 '12년 12.7%를 기록한 후 지속 증가하여 '21년에는 18.9% 수준으로 예상됨(한국의 '21년 GDP 대비 외채 비중 전망치는 25.8% 수준)

단기(12개월) Risk Sc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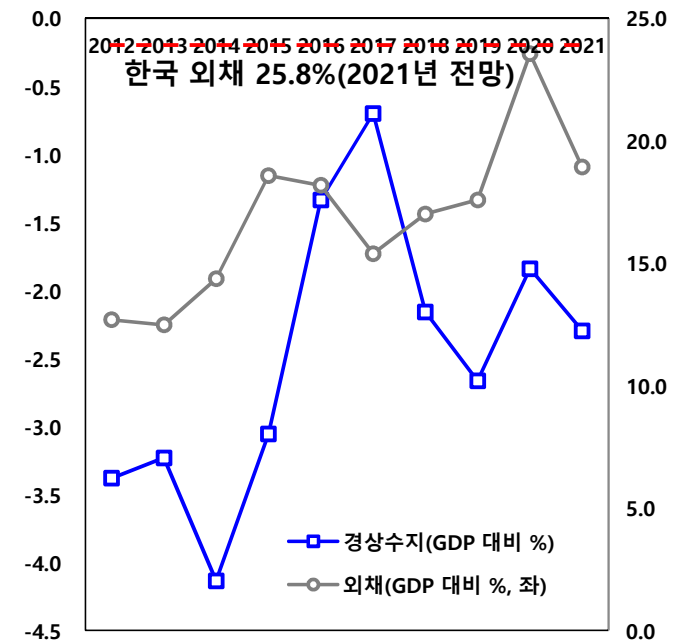
[출처 : IMF, OECD, IHS Markit 등 자료 종합]

중기(5년) Risk Score



[출처 : IMF, OECD, IHS Markit 등 자료 종합]

GDP 대비 경상수지, 외채 비중 추이



[출처 : IMF, OECD, IHS Markit 등 자료 종합]

브라질. 수주 기여도 및 종합 전망

(수주 기여도) 최근 10년 평균 수주 기여도는 1.4% 수준임

[단위 : 백만불]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국가 수주액(A)	4,606	198	665	25	10	15	10	470	67	248	6,314
해외건설 수주액(B)	59,144	64,881	65,212	66,010	46,144	28,192	29,006	32,113	22,319	35,131	448,152
해당 국가의 수주 기여도(A/B)	7.8%	0.3%	1.0%	0.0%	0.0%	0.1%	0.0%	1.5%	0.3%	0.7%	1.4%

[출처 : ICAK]

(종합 전망)

구분	Economic Risk (‘20, ‘21년 경제성장률)	Pipeline Size (GDP 대비 건설시장규모 비중)	Risk Assessment (단기, 장기 Score)	수주 기여도 (최근 10년 평균 수주 비중)	2021년 시장규모	2021년 성장률	CAGR (‘17~‘21)
브라질	Positive (-7.0%, 3.8%)	Neutral (8.0%)	Positive (5.2, 4.9)	Neutral (1.4%)	1,343억불	12.8 %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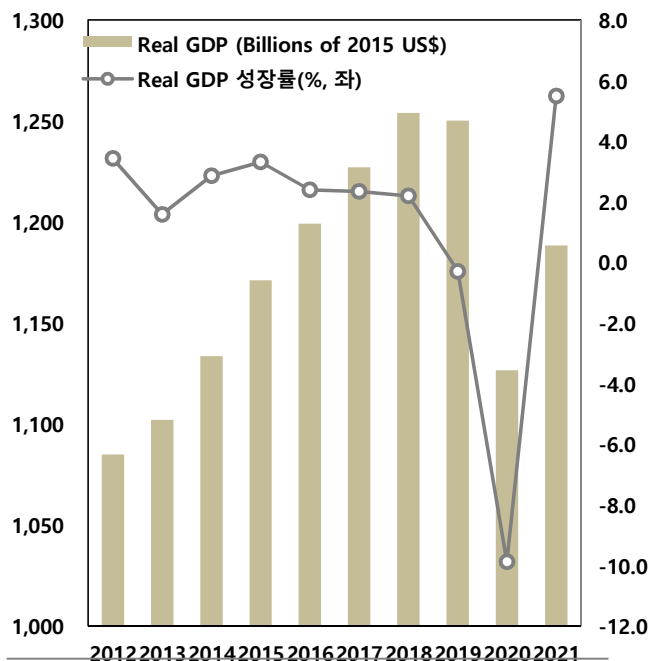
➤ 세계건설시장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의 리스크 지수, 경제규모 및 성장 등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임. 단, 8%대의 GDP 대비 건설시장 비중, 1.4% 수준의 수주 기여도, 언어 등 문화 차이, 현지 기업의 경쟁력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중장기적 측면의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장임

➤ 고속철도, 태양광, 정유시설 사업 기회가 풍부해질 전망

(경제) '20년 9%대 역성장, '21년 5%대의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한 정부 지출 및 소비 증가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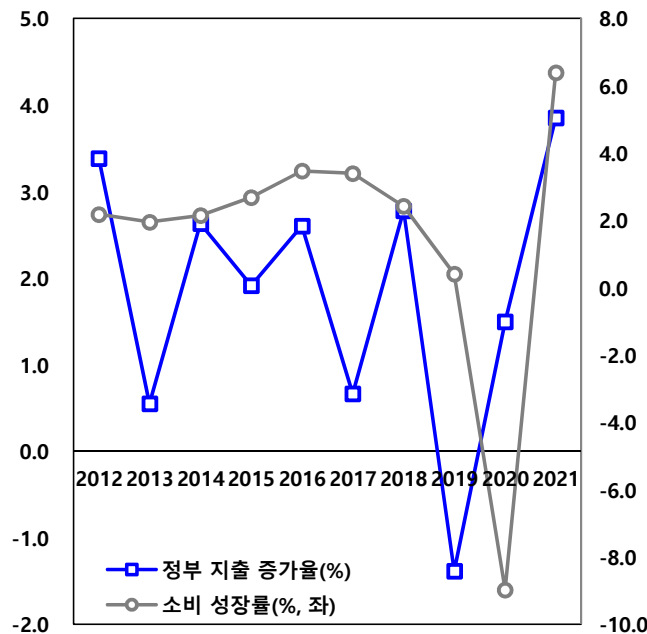
-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저유가 기조 및 경기 침체로 '20년 9.9% 역성장. 국제유가 소폭 상승, 백신 및 치료제 공급, 경제 정상화 기대로 '21년 GDP 성장률은 5.5%로 예상
- 정부 지출 증가율은 '21년 3.8%, 소비 성장률은 6.4%로 예측되는 등 '21년에는 정부 지출, 소비 여력 모두 회복될 전망
- 고정 투자 성장률은 코로나19로 '20년 -19.3%, '21년 6.4%를 기록할 전망으로 투자 회복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보임. 실업률은 6.7%로 다소 상승 예상

생산 지표(Real GDP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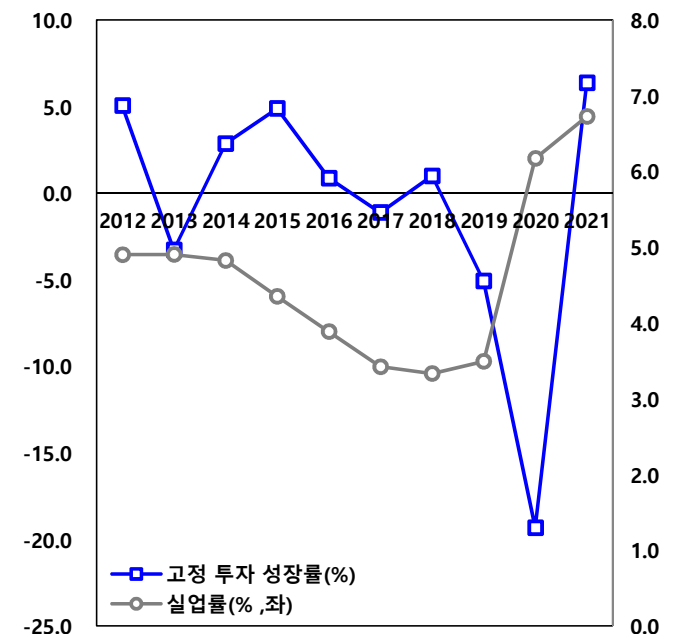
[출처 : IMF, OECD, IHS Markit 등 자료 종합]

정부 지출 증가율 및 소비 성장률



[출처 : IMF, OECD, IHS Markit 등 자료 종합]

고정 투자 성장률 및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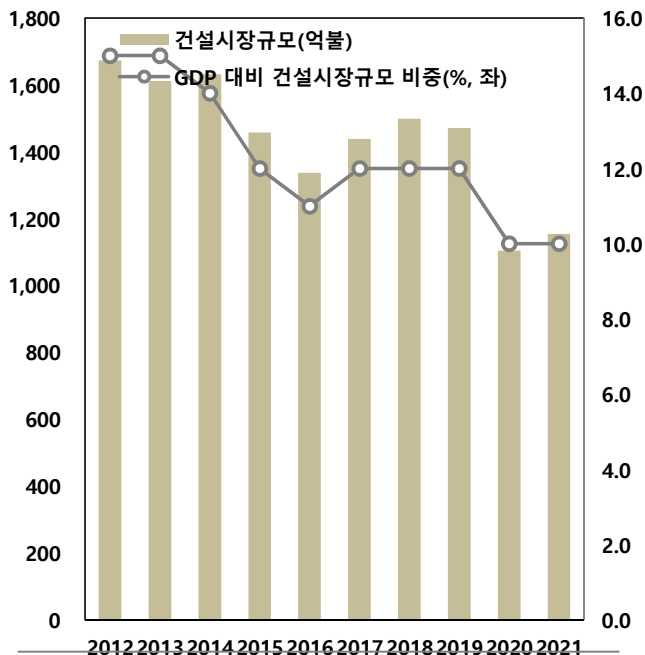
[출처 : IMF, OECD, IHS Markit 등 자료 종합]

멕시코. Pipeline Size

(건설시장규모) 최근 10년간 GDP 대비 건설시장 비중 감소세(15→12→10%). '21년 1,154억불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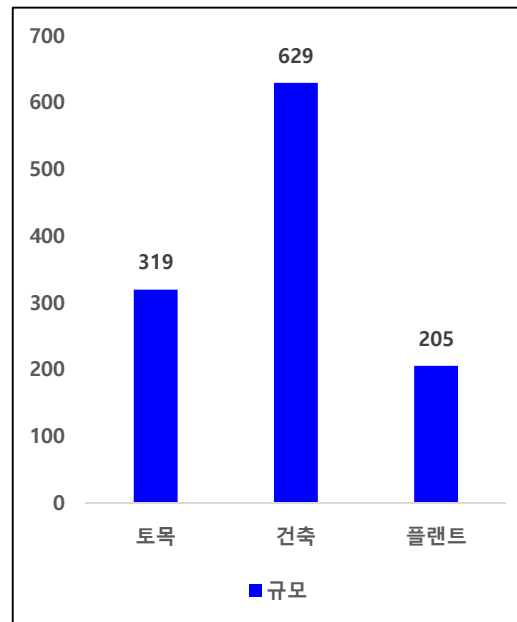
- 상당한 수준의 국제유가 반등이 일어나지 않은 한 건설시장 규모는 1,400~1,100억불대에서 유지될 전망
- 주거용 건물 등 건축이 629억불(54.5%), 발전 등 플랜트 205억불(17.8%), 교통 등 토목이 319억불(27.6%)의 규모가 예상
- 건설시장의 성장 동력(driver) 중 하나인 인구는 2012년 대비 11.1% 증가한 130백만명으로 증가함. 도시화율은 81% 수준임

GDP 대비 건설시장규모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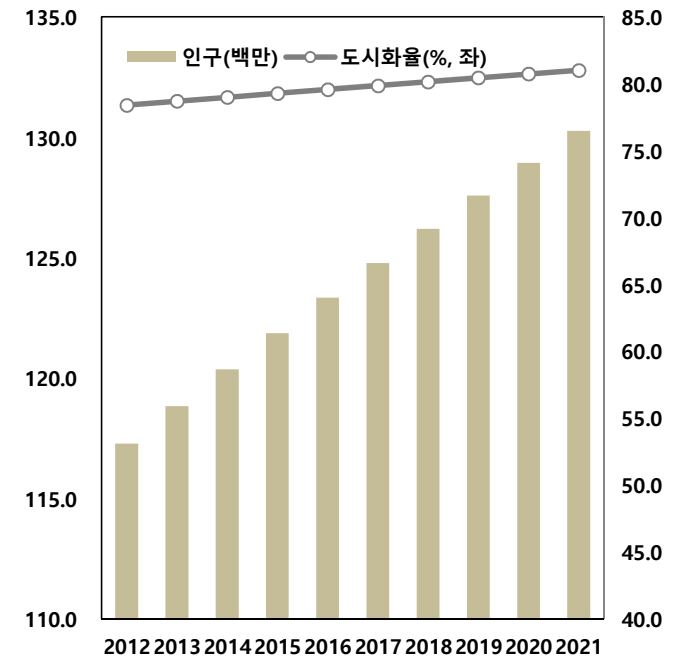
[출처 : IMF, OECD, IHS Markit 등 자료 종합]

주요 공종별 건설시장규모



[출처 : IMF, OECD, IHS Markit 등 자료 종합]

인구수 및 도시화율 (Construction Drivers)



[출처 : IMF, OECD, IHS Markit 등 자료 종합]

(공종별 건설시장규모 추이)

[단위 : 억불]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토목	325	307	359	340	338	394	421	430	315	319
교통인프라	312	296	348	328	326	381	405	414	302	306
수처리	13	11	11	12	12	13	16	16	13	13
건축	936	882	868	763	692	748	776	764	581	629
주거용	694	668	652	571	521	565	587	581	462	487
오피스	133	123	127	116	102	106	108	105	71	83
상업시설	59	41	38	40	37	42	44	42	26	31
공공시설	50	50	51	36	32	35	37	36	22	28
플랜트	415	422	406	353	308	296	302	277	205	205
에너지	311	305	283	238	195	178	176	148	96	103
유틸리티	5	5	5	4	3	3	4	4	3	3
통신	6	5	4	4	4	4	4	4	4	5
정유시설	2	3	5	4	1	1	1	1	1	1
교통장비 등	23	16	21	18	19	20	21	22	17	16
화학시설	10	10	9	10	10	11	12	12	11	10
전기	26	45	44	34	34	35	37	38	31	28
음식료 공장	7	10	10	13	13	13	14	15	15	14
기타	25	23	25	28	29	31	33	33	27	25
총 시장규모	1,673	1,611	1,632	1,457	1,337	1,438	1,498	1,471	1,104	1,1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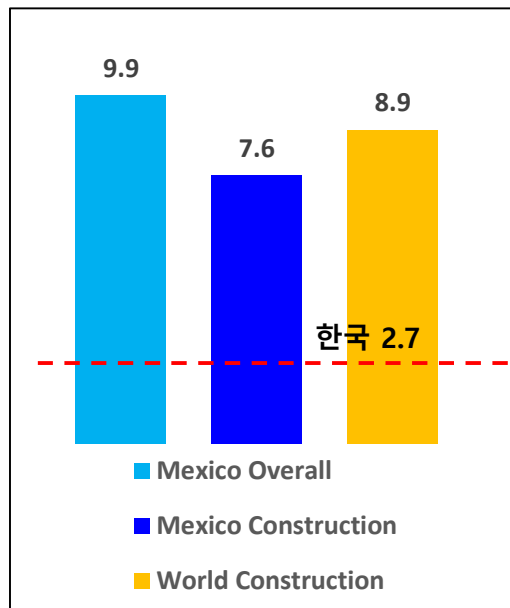
[출처 : IHS Markit, ICAK 등 자료 종합]

멕시코. Risk assessment

단기, 중기 측면에서도 다소 안정성을 보유한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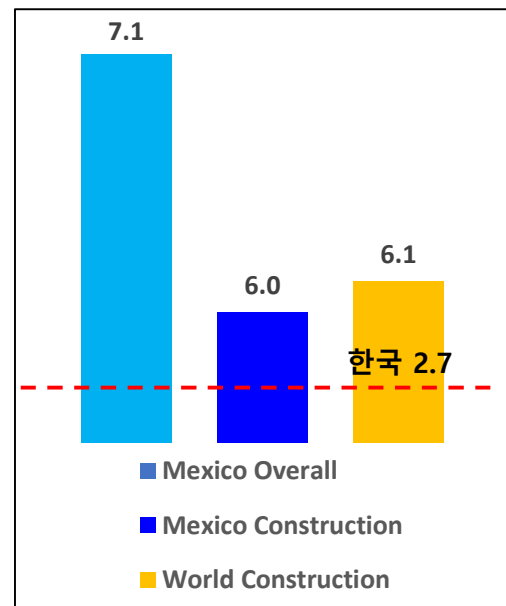
- 단기(12개월) Risk Score는 7.6로 세계건설시장(8.9) 보다 낮으나, 다소 높은 수준
- 중기(5년) Risk Score도 6.0로 세계건설시장(6.1) 리스크 지수와 유사한 수준
- 최근 10년간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를 보면, 지속적으로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21년에는 GDP 대비 2.8%대 적자가 예상됨(한국의 '21년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 전망치는 3.9%)
- GDP 대비 외채(Total Foreign Debt) 비중은 '12년 이후 지속 상승 추세이며, '21년에는 41.7% 수준으로 예상됨(한국의 '21년 GDP 대비 외채 비중 전망치는 25.8% 수준)

단기(12개월) Risk Sc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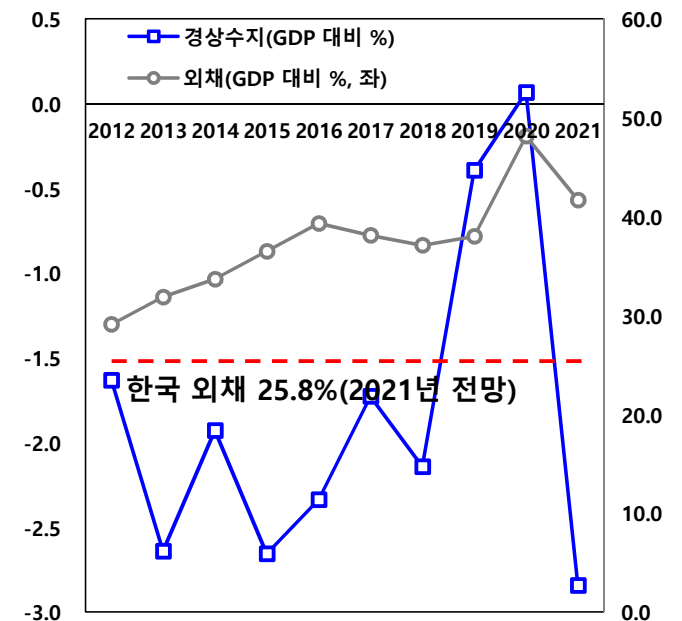
[출처 : IMF, OECD, IHS Markit 등 자료 종합]

중기(5년) Risk Score



[출처 : IMF, OECD, IHS Markit 등 자료 종합]

GDP 대비 경상수지, 외채 비중 추이



[출처 : IMF, OECD, IHS Markit 등 자료 종합]

멕시코. 수주 기여도 및 종합 전망

(수주 기여도) 최근 10년 평균 수주 기여도는 1.4% 수준임

[단위 : 백만불]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국가 수주액(A)	362	110	44	359	370	802	113	15	359	3,710	6,244
해외건설 수주액(B)	59,144	64,881	65,212	66,010	46,144	28,192	29,006	32,113	22,319	35,131	448,152
해당 국가의 수주 기여도(A/B)	0.6%	0.2%	0.1%	0.5%	0.8%	2.8%	0.4%	0.0%	1.6%	10.6%	1.4%

[출처 : ICAK]

(종합 전망)

구분	Economic Risk (‘20, ‘21년 경제성장률)	Pipeline Size (GDP 대비 건설시장규모 비중)	Risk Assessment (단기, 장기 Score)	수주 기여도 (최근 10년 평균 수주 비중)	2021년 시장규모	2021년 성장률	CAGR (‘17~‘21)
멕시코	Positive (-9.9%, 5.5%)	Positive (10.0%)	Positive (7.6, 6.0)	Neutral (1.4%)	1,154 억불	4.5 %	-5.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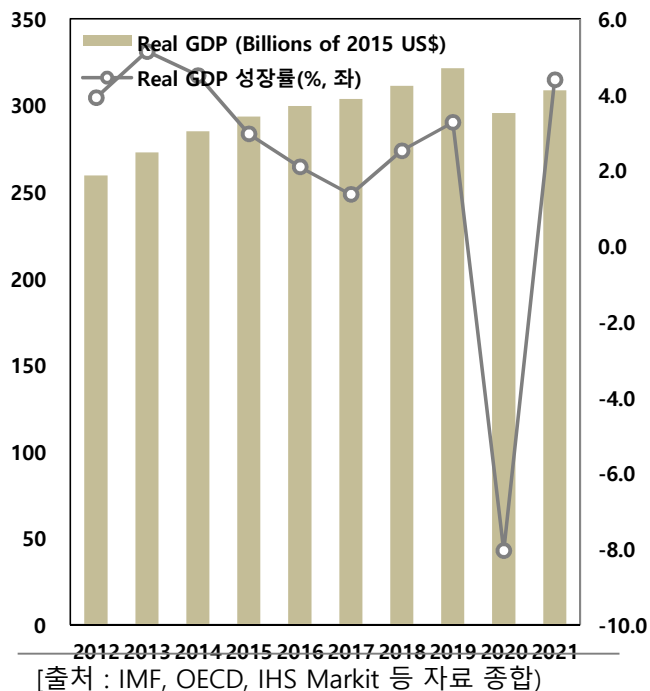
➤ 양호한 경제성장, 10% 수준의 GDP 대비 건설시장 비중, 세계건설시장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의 리스크 지수, 과거 10년 평균 1.4% 수준의 수주 비중 등을 종합해 볼 때, 멕시코 건설시장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철도, 항만, Oil & Gas 관련 플랜트 사업 기회에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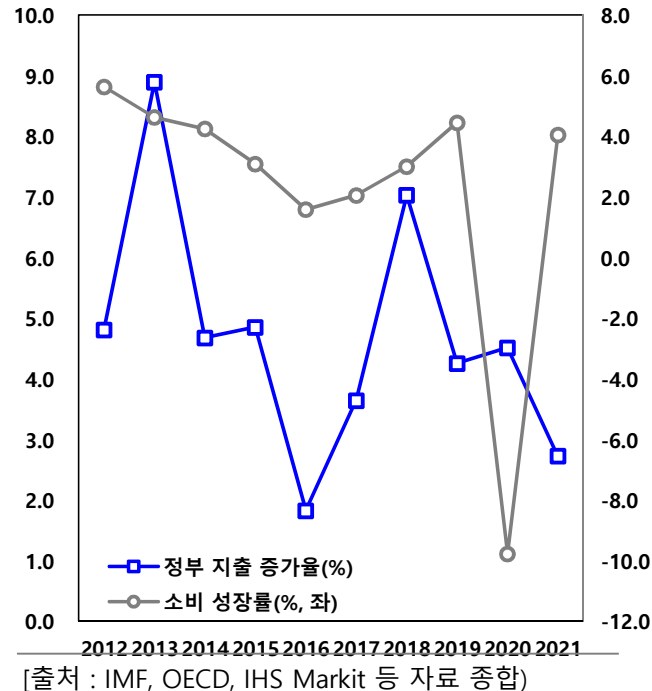
(경제) '20년 8%대 역성장, '21년 4%대의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한 소비 증가 기대

- 저유가 기조로 인한 정부 재정 축소 리스크가 존재하나, '21년 GDP 성장률은 4.4%로 예상
- 정부 지출 증가율은 '21년 2.7%, 소비 성장률은 4.0%로 예측됨. 의미 있는 유가 반등이 이뤄지지 않는 한 정부 지출 확대는 어려운 상황임
- 고정 투자 성장률은 코로나19로 '20년 -12.%, '21년 3.7%를 기록할 전망. 즉 경제 회복 및 투자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실업률은 13.4%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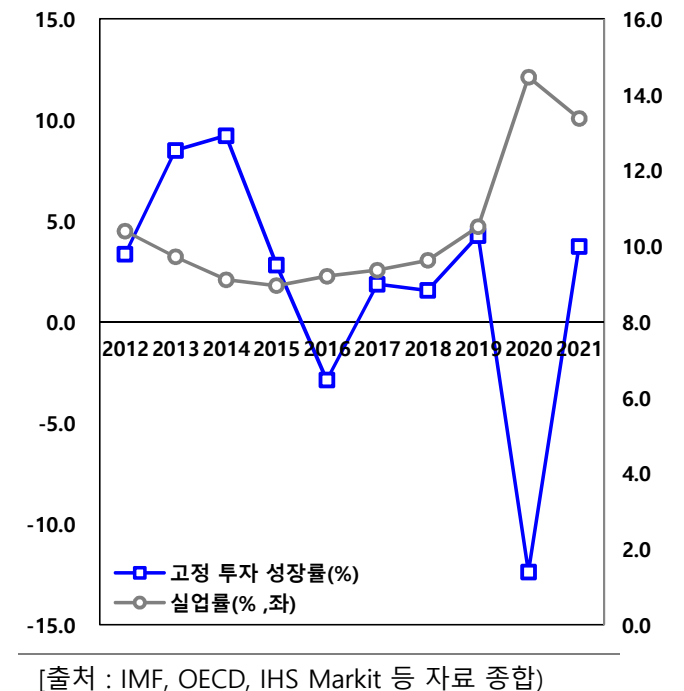
생산 지표(Real GDP 등)



정부 지출 증가율 및 소비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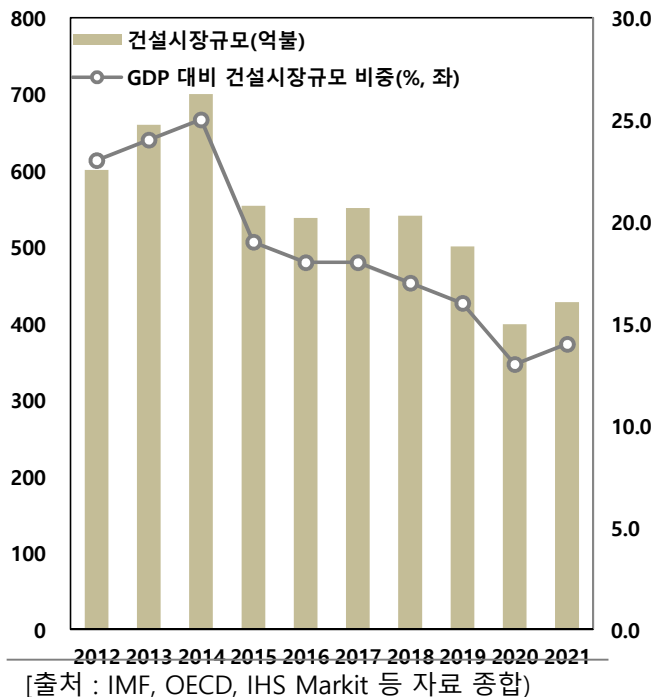
고정 투자 성장률 및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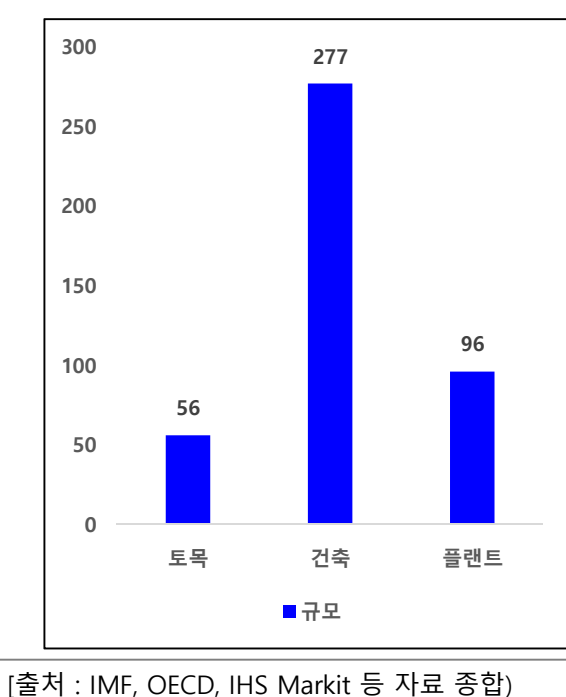
(건설시장규모) 최근 10년간 GDP 대비 건설시장 감소세(25→18→14%), '21년 428억불 예상

- 저유가로 인한 정유 플랜트 발주 감소 등으로 GDP 대비 건설시장 비중은 감소하고 있음. '20년 399억불 대비 7.3% 증가한 428억불로 성장 기대
- 주거용 건물 등 건축이 277억불(64.7%), 발전 등 플랜트 96억불(22.4%), 교통 등 토목이 56억불(13.1%)의 규모가 예상
- 건설시장의 성장 동력(driver) 중 하나인 인구는 2012년 대비 11.3% 증가한 51.3백만명이며, 도시화율은 81%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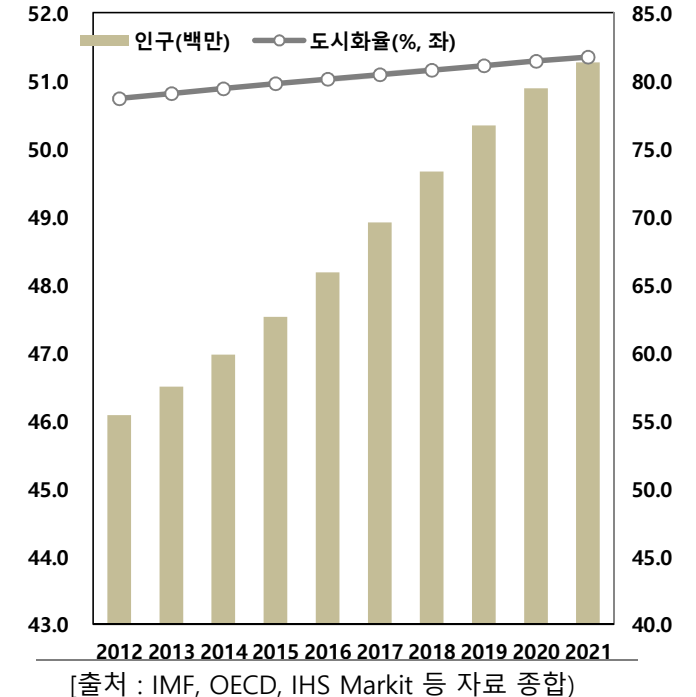
GDP 대비 건설시장규모 비중



주요 공종별 건설시장규모



인구수 및 도시화율 (Construction Drivers)



(공종별 건설시장규모 추이)

[단위 : 억불]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토목	46	55	66	64	67	67	63	61	53	56
교통인프라	28	35	44	43	46	45	43	42	36	38
수처리	18	20	22	21	21	22	20	19	17	18
건축	393	432	459	361	350	358	353	327	260	277
주거용	292	323	342	267	257	260	255	236	189	201
오피스	24	26	28	22	21	22	22	20	16	17
상업시설	26	27	29	24	25	26	26	25	19	20
공공시설	51	56	60	48	47	50	50	46	36	39
플랜트	162	173	177	130	120	124	126	115	87	96
에너지	132	141	142	103	94	100	101	93	69	77
유틸리티	11	12	12	9	10	10	10	9	7	8
통신	1	1	2	1	1	1	1	1	1	1
정유시설	0	0	0	0	0	0	0	0	0	0
교통장비 등	7	8	9	8	6	5	6	5	4	4
화학시설	1	1	1	1	1	1	1	1	1	1
전기	1	1	1	0	0	0	0	0	0	0
음식료 공장	4	4	5	4	4	4	4	3	3	3
기타	5	5	5	4	4	3	3	3	2	2
총 시장규모	601	660	700	554	538	551	541	501	399	4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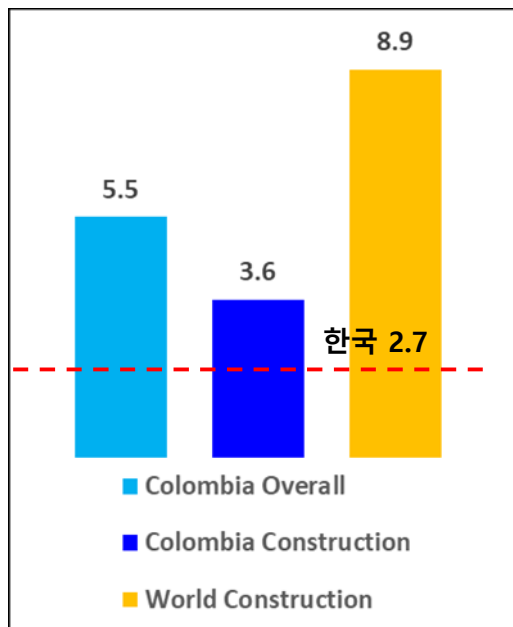
[출처 : IHS Markit, ICAK 등 자료 종합]

콜롬비아. Risk assessment

단기, 중기 측면에서 Risk Score는 양호하나, 언어 등 문화 차이, 현지 및 스페인 기업의 경쟁력에 대한 준비가 절실한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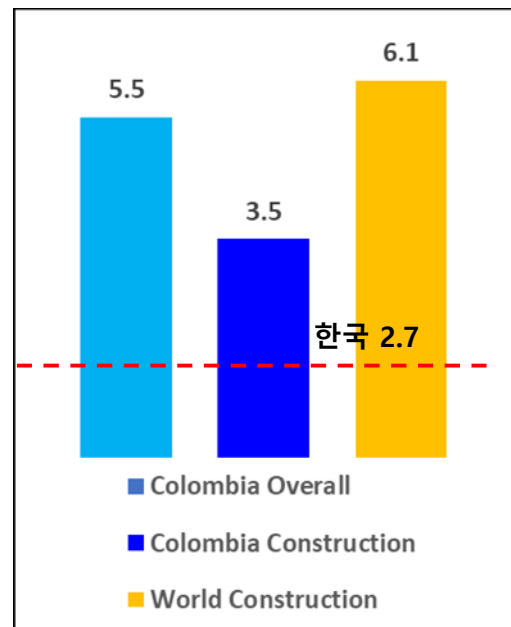
- 단기(12개월) Risk Score는 3.6로 세계건설시장(8.9)보다 양호한 수준
- 중기(5년) Risk Score도 3.5로 세계건설시장(6.1)보다 양호한 수준
- 최근 10년간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데, '21년에는 GDP 대비 적자는 2.0% 수준(한국의 '21년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 전망치는 3.9%)
- GDP 대비 외채(Total Foreign Debt) 비중은 '12년 이후 증가세로 '21년에는 41.4% 수준으로 예상됨(한국의 '21년 GDP 대비 외채 비중 전망치는 25.8% 수준)

단기(12개월) Risk Sc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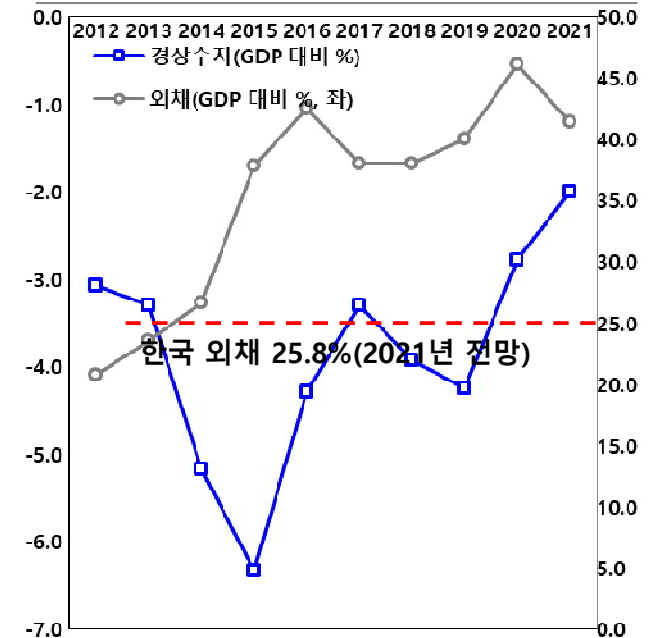
[출처 : IMF, OECD, IHS Markit 등 자료 종합]

중기(5년) Risk Score



[출처 : IMF, OECD, IHS Markit 등 자료 종합]

GDP 대비 경상수지, 외채 비중 추이



[출처 : IMF, OECD, IHS Markit 등 자료 종합]

콜롬비아. 수주 기여도 및 종합 전망

(수주 기여도) 최근 10년 평균 수주 기여도는 0.1% 수준임

[단위 : 백만불]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국가 수주액(A)	0	506	0	0	3	3	0	5	6	1	524
해외건설 수주액(B)	59,144	64,881	65,212	66,010	46,144	28,192	29,006	32,113	22,319	35,131	448,152
해당 국가의 수주 기여도(A/B)	0.0%	0.8%	0.0%	0.0%	0.0%	0.0%	0.0%	0.0%	0.0%	0.0%	0.1%

[출처 : ICAK]

(종합 전망)

구분	Economic Risk (’20, ’21년 경제성장률)	Pipeline Size (GDP 대비 건설시장규모 비중)	Risk Assessment (단기, 장기 Score)	수주 기여도 (최근 10년 평균 수주 비중)	2021년 시장규모	2021년 성장률	CAGR (’17~’21)
콜롬비아	Positive (-8.0%, 4.4%)	Positive (14.0%)	Positive (3.6, 3.5)	Negative (0.1%)	428 억불	7.2%	-6.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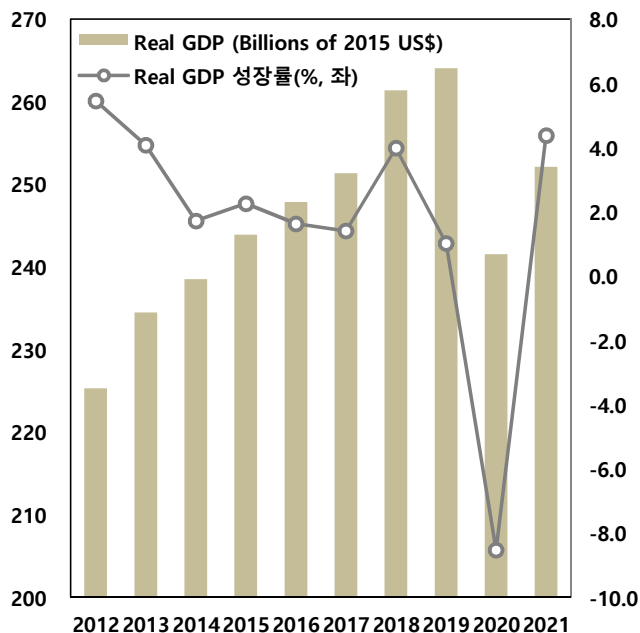
➤ 양호한 경제성장, 14% 수준의 GDP 대비 건설시장 비중, 세계건설시장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의 리스크 지수는 비교적 양호함. 단, 저유가 기조하에서 콜롬비아 시장은 제한적 성장이 할 수 밖에 없음. 이에 중장기적 측면에서 신시장 접근이 필요함

➤ 도로, 정유 플랜트 사업 발주 증가 기대

(경제) '20년 8%대 역성장, '21년 7%대의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한 소비 증가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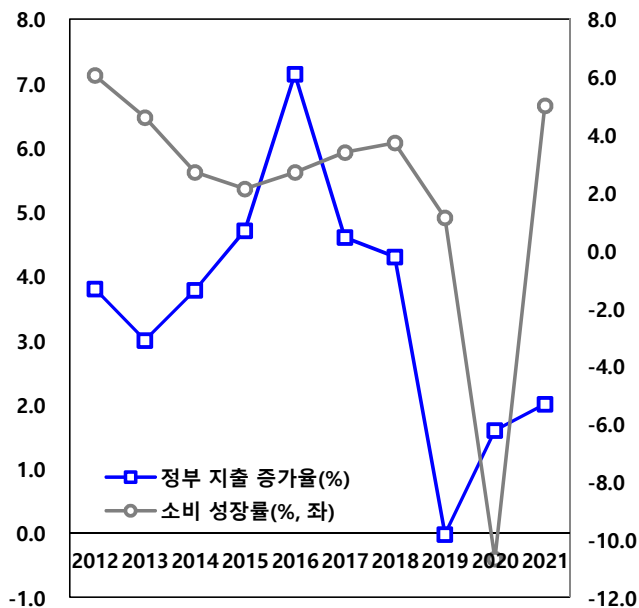
- '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가 있었으나, 세계 경제의 회복세 및 구리 가격 상승, 백신 사용 승인, 경기 부양책 등의 영향으로 '21년 GDP 성장률은 4.4%로 전망
- 정부 지출 증가율은 '21년 2.0%, 소비 성장률은 5.0%로 점진적인 회복이 기대됨
- 고정 투자 성장률은 코로나19로 '20년 -12.3%, '21년 4.2%를 기록할 전망. 본격적인 경제 회복 및 투자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실업률은 8.6%로 전망

생산 지표(Real GDP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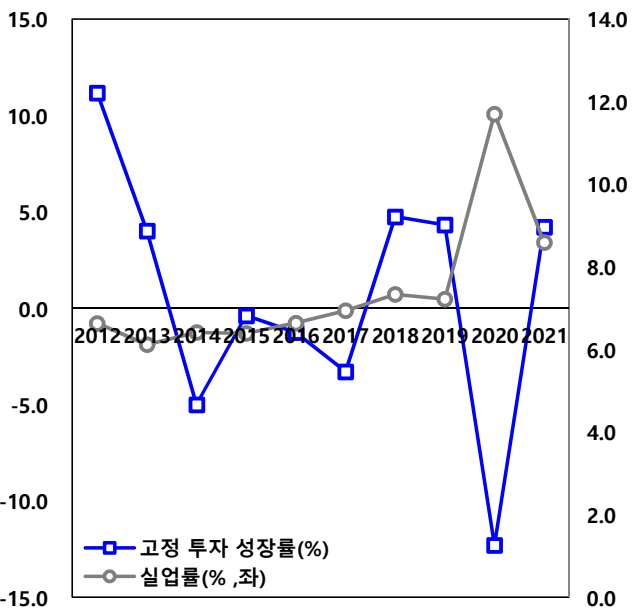
[출처 : IMF, OECD, IHS Markit 등 자료 종합]

정부 지출 증가율 및 소비 성장률



[출처 : IMF, OECD, IHS Markit 등 자료 종합]

고정 투자 성장률 및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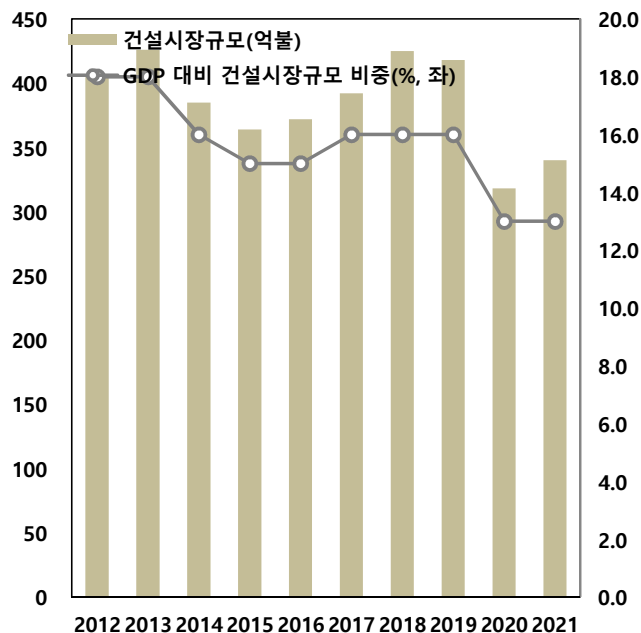
[출처 : IMF, OECD, IHS Markit 등 자료 종합]

칠레. Pipeline Size

(건설시장규모) 최근 10년간 GDP 대비 건설시장 비중 다소 감소(18→16→13%), '21년 340억불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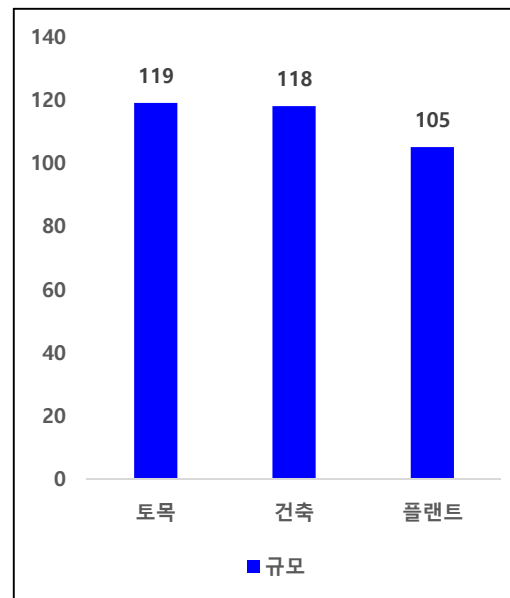
- '20년 하반기부터 구리 가격 상승 기조 및 백신 사용 승인 등에 따른 경제 회복이 기대됨. 이에 따라 '20년 318억불 대비 6.9% 성장한 340억불 예상
- 주거용 건물 등 건축이 118억불(34.7%), 발전 등 플랜트 105억불(30.9%), 교통 등 토목이 119억불(35.0%)의 규모가 예상
- 건설시장의 성장 동력(driver) 중 하나인 인구는 2012년 대비 13.8% 증가한 19.2백만명으로 전망. 도시화율도 88% 수준으로 예상됨

GDP 대비 건설시장규모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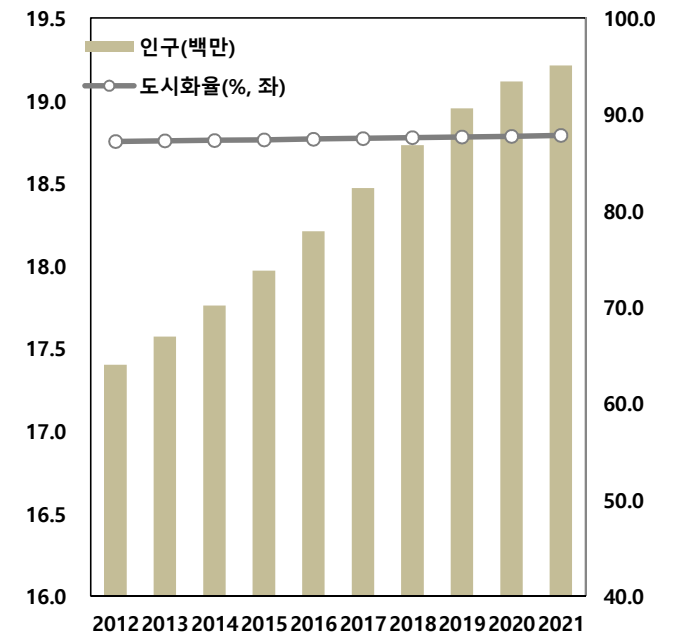
[출처 : IMF, OECD, IHS Markit 등 자료 종합]

주요 공종별 건설시장규모



[출처 : IMF, OECD, IHS Markit 등 자료 종합]

인구수 및 도시화율 (Construction Drivers)



[출처 : IMF, OECD, IHS Markit 등 자료 종합]

(공종별 건설시장규모 추이)

[단위 : 억불]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토목	159	167	151	136	134	137	149	151	112	119
교통인프라	115	121	109	101	99	99	107	108	77	81
수처리	44	46	42	35	35	38	42	43	35	38
건축	141	147	132	124	129	136	146	143	111	118
주거용	107	111	100	95	98	103	111	108	85	90
오피스	19	20	18	16	17	18	19	19	15	16
상업시설	11	11	10	9	9	10	11	11	7	8
공공시설	4	5	4	4	5	5	5	5	4	4
플랜트	107	113	101	102	109	120	129	124	97	105
에너지	100	106	96	97	103	113	122	117	91	99
유틸리티	2	2	2	2	3	3	3	3	2	2
통신	2	2	1	1	1	1	1	1	1	1
정유시설	0	0	0	0	0	1	1	1	1	1
교통장비 등	0	0	0	0	0	0	0	0	0	0
화학시설	1	1	0	0	0	0	0	0	0	0
전기	0	0	0	0	0	0	0	0	0	0
음식료 공장	1	1	1	1	1	1	1	1	1	1
기타	1	1	1	1	1	1	1	1	1	1
총 시장규모	407	426	385	364	372	392	425	418	318	3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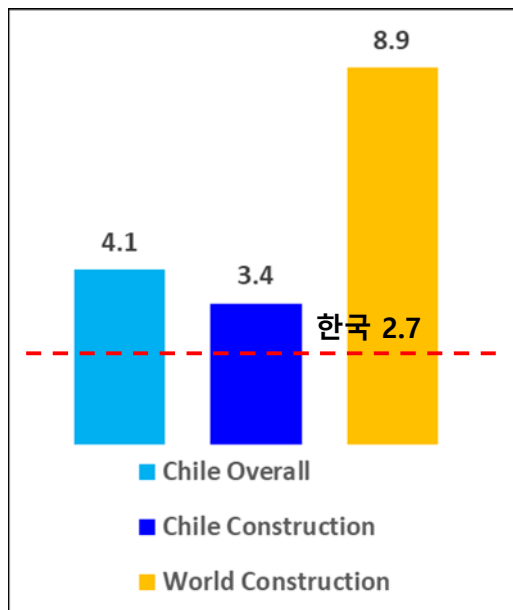
[출처 : IHS Markit, ICAK 등 자료 종합]

칠레. Risk assessment

단기, 중기 측면에서 Risk Score는 양호하나, 언어 등 문화 차이, 현지 및 스페인 기업의 경쟁력에 대한 준비가 절실한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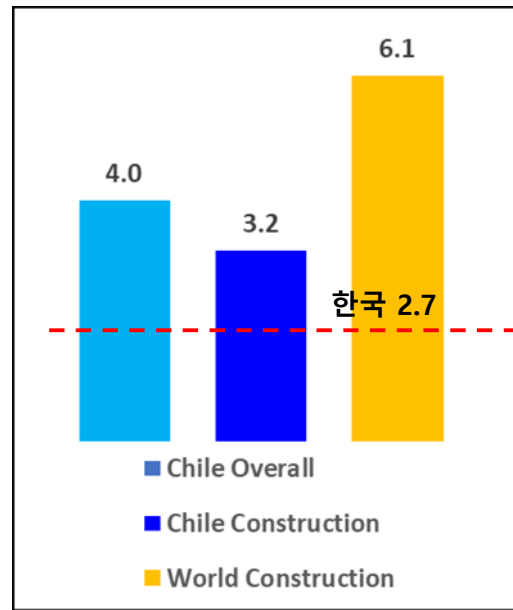
- 단기(12개월) Risk Score는 3.4로 세계건설시장(8.9)보다 양호한 수준
- 중기(5년) Risk Score도 3.2로 세계건설시장(6.1)보다 양호한 수준
- 최근 10년간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데, '21년에는 GDP 대비 적자는 1.4% 수준(한국의 '21년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 전망치는 3.9%)
- GDP 대비 외채(Total Foreign Debt) 비중은 '12년 이후 50~60% 사이에서 등락을 하고 있으며, '21년에는 54.2% 수준으로 예상됨(한국의 '21년 GDP 대비 외채 비중 전망치는 25.8% 수준)

단기(12개월) Risk Sc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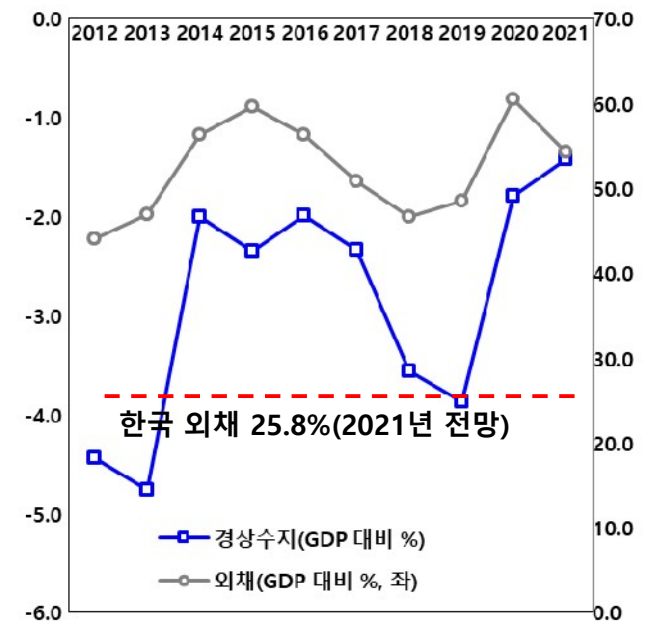
[출처 : IMF, OECD, IHS Markit 등 자료 종합]

중기(5년) Risk Score



[출처 : IMF, OECD, IHS Markit 등 자료 종합]

GDP 대비 경상수지, 외채 비중 추이



[출처 : IMF, OECD, IHS Markit 등 자료 종합]

칠레. 수주 기여도 및 종합 전망

(수주 기여도) 최근 10년 평균 수주 기여도는 1.0% 수준임

[단위 : 백만불]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국가 수주액(A)	636	1,604	102	871	1,225	42	-11	114	-123	10	4,470
해외건설 수주액(B)	59,144	64,881	65,212	66,010	46,144	28,192	29,006	32,113	22,319	35,131	448,152
해당 국가의 수주 기여도(A/B)	1.1%	2.5%	0.2%	1.3%	2.7%	0.1%	0.0%	0.4%	-0.6%	0.0%	1.0%

[출처 : ICAK]

(종합 전망)

구분	Economic Risk (‘20, ‘21년 경제성장률)	Pipeline Size (GDP 대비 건설시장규모 비중)	Risk Assessment (단기, 장기 Score)	수주 기여도 (최근 10년 평균 수주 비중)	2021년 시장규모	2021년 성장률	CAGR (‘17~‘21)
칠레	Positive (-8.5%, 3.9%)	Positive (13.0%)	Positive (3.4, 3.2)	Neutral (1.0%)	340 억불	7.2 %	-3.5 %

➤ 양호한 경제성장, 13% 수준의 GDP 대비 건설시장 비중, 세계건설시장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의 리스크 지수, 과거 10년 평균 1.0% 수준의 수주 비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칠레 건설시장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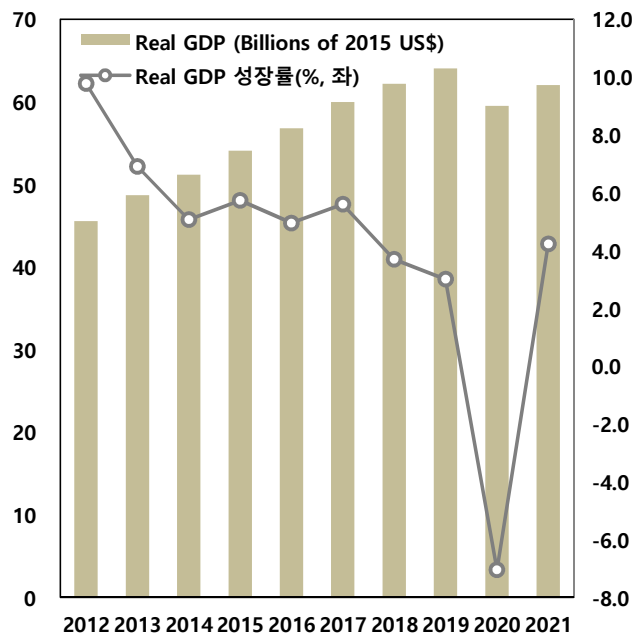
➤ 발전소, 석유화학 플랜트 사업 기회에 주목

파나마. Economic Risk

(경제) '20년 7%대 역성장, '21년 4%대의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한 소비 증가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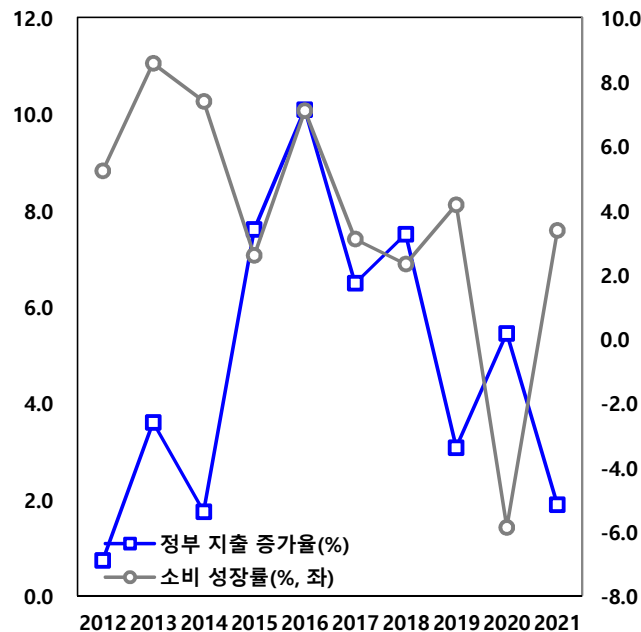
- '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가 있었으나, 적극적인 공공 인프라 사업 추진 등 경기 부양을 통해 정상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21년 GDP 성장률은 4.2%로 전망
- 정부 지출 증가율은 '21년 1.9%, 소비 성장률은 3.4%로 점진적인 회복이 기대됨
- 고정 투자 성장률은 코로나19로 '20년 -5.0%, '21년 4.7%를 기록할 전망. 본격적인 경제 회복 및 투자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실업률은 9.1%로 전망

생산 지표(Real GDP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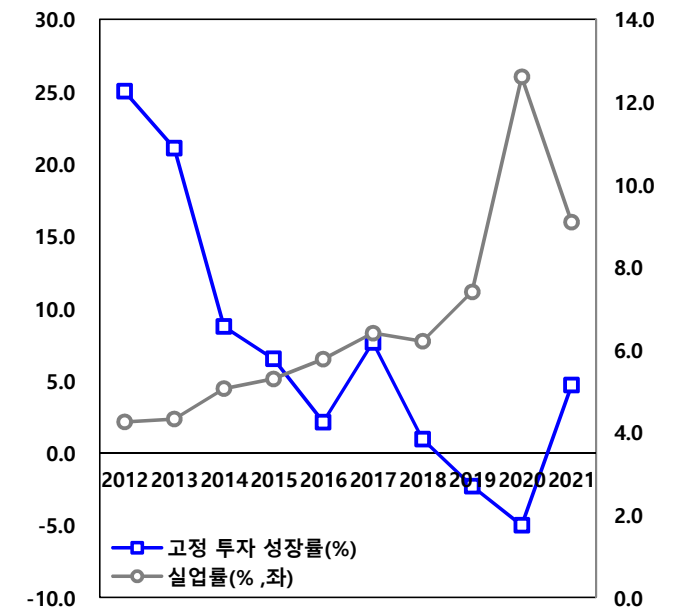
[출처 : IMF, OECD, IHS Markit 등 자료 종합]

정부 지출 증가율 및 소비 성장률



[출처 : IMF, OECD, IHS Markit 등 자료 종합]

고정 투자 성장률 및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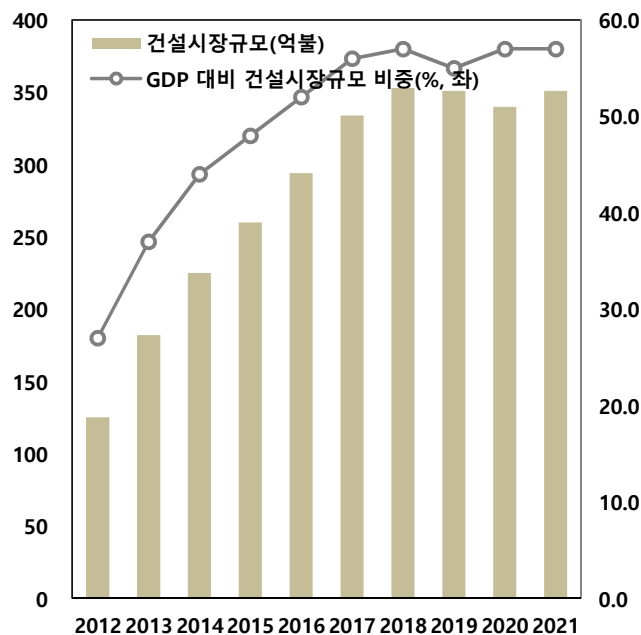
[출처 : IMF, OECD, IHS Markit 등 자료 종합]

파나마. Pipeline Size

(건설시장규모) 최근 10년간 GDP 대비 건설시장 규모 비중 증가(27→48→57%), '21년 351억불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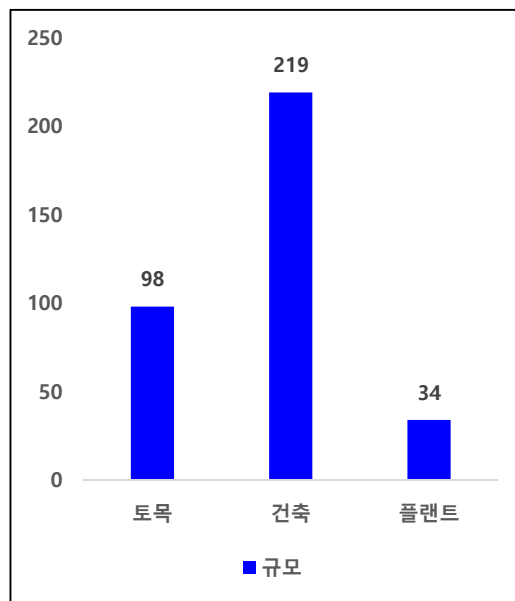
- 파나마 운하 확장, 주거, 상업용 건축 호조로 GDP 대비 건설시장규모 비중은 지속 증가하여 '21년에는 57% 수준을 기록할 전망. '21년 시장 규모는 '20년 340억불 대비 8.8% 성장한 351억불 예상
- 주거용 건물 등 건축이 219억불(62.4%), 발전 등 플랜트 34억불(9.7%), 교통 등 토목이 90억불(27.9%)의 규모가 예상
- 건설시장의 성장 동력(driver) 중 하나인 인구는 2012년 대비 16.2% 증가한 4.4백만명으로 전망. 도시화율은 69% 수준으로 향후 지속 증가가 예상됨

GDP 대비 건설시장규모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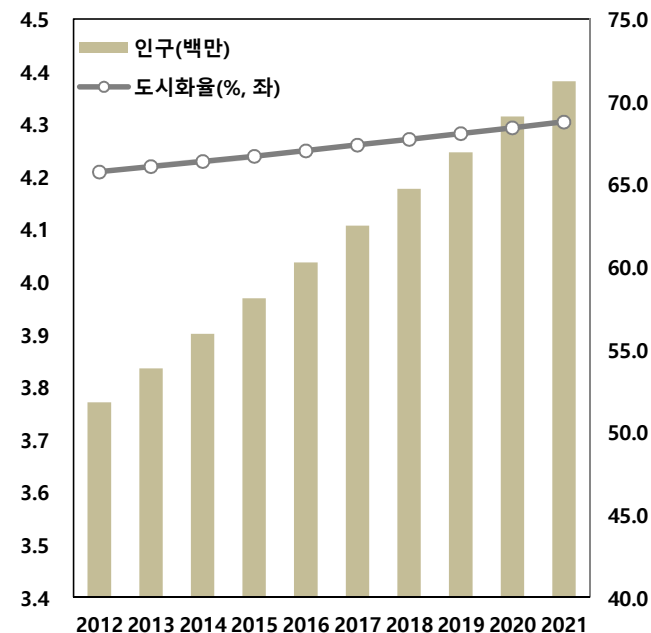
[출처 : IMF, OECD, IHS Markit 등 자료 종합]

주요 공종별 건설시장규모



[출처 : IMF, OECD, IHS Markit 등 자료 종합]

인구수 및 도시화율 (Construction Drivers)



[출처 : IMF, OECD, IHS Markit 등 자료 종합]

(공종별 건설시장규모 추이)

[단위 : 억불]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토목	34	50	63	73	82	92	99	99	96	98
교통인프라	33	48	61	71	79	89	96	96	93	95
수처리	1	2	2	2	3	3	3	3	3	3
건축	79	113	139	162	182	208	218	218	213	219
주거용	52	74	87	101	115	132	140	140	136	139
오피스	8	12	15	18	20	23	24	25	21	22
상업시설	14	20	28	32	35	39	40	39	39	40
공공시설	5	7	9	11	12	14	14	14	17	18
플랜트	11	18	23	26	30	35	36	34	31	34
에너지	6	10	12	13	15	17	18	18	18	20
유틸리티	2	3	4	4	5	6	6	5	4	5
통신	2	3	5	6	7	8	8	7	6	6
정유시설	0	0	0	0	0	0	0	0	0	0
교통장비 등	0	0	0	0	0	0	0	0	0	0
화학시설	0	0	0	0	0	0	0	0	0	0
전기	0	0	0	0	0	0	0	0	0	0
음식료 공장	1	1	1	2	2	3	3	3	2	2
기타	0	1	1	1	1	1	1	1	1	1
총 시장규모	125	182	225	260	294	334	353	351	340	3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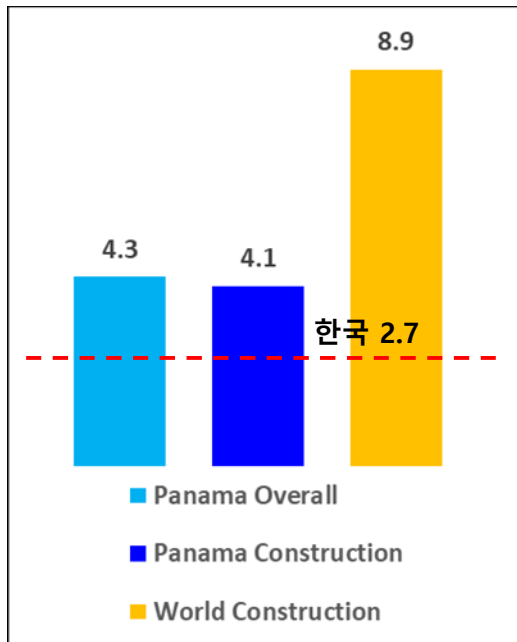
[출처 : IHS Markit, ICAK 등 자료 종합]

파나마. Risk assessment

단기, 중기 측면에서 Risk Score는 양호한 시장으로, '20년 파나마 사업을 수주한 경험을 토대로 사업 확장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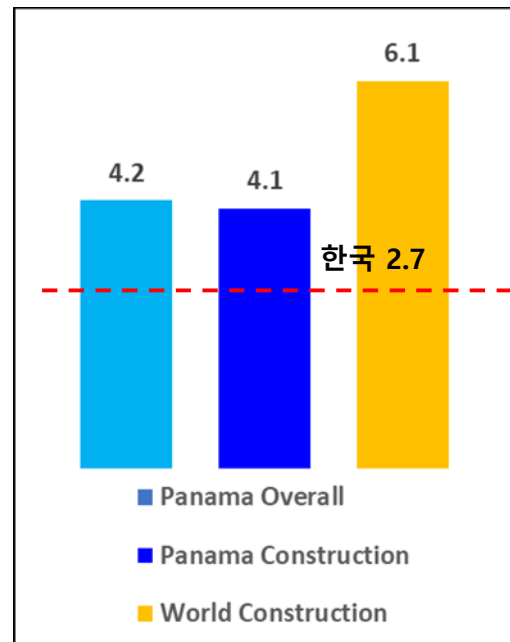
- 단기(12개월) Risk Score는 4.1로 세계건설시장(8.9)보다 양호한 수준
- 중기(5년) Risk Score도 4.1로 세계건설시장(6.1)보다 양호한 수준
- 최근 10년간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데, '21년에는 GDP 대비 적자는 7.0% 수준(한국의 '21년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 전망치는 3.9%)
- GDP 대비 외채(Total Foreign Debt) 비중은 '12년 이후 140~180% 사이에서 등락을 하고 있으며, '21년에는 184.7% 수준으로 예상됨(한국의 '21년 GDP 대비 외채 비중 전망치는 25.8% 수준)

단기(12개월) Risk Sc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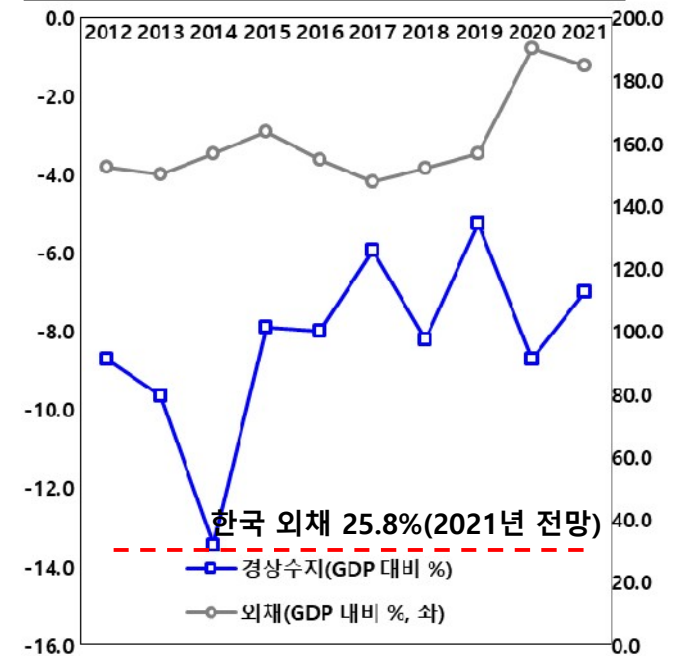
[출처 : IMF, OECD, IHS Markit 등 자료 종합]

중기(5년) Risk Score



[출처 : IMF, OECD, IHS Markit 등 자료 종합]

GDP 대비 경상수지, 외채 비중 추이



[출처 : IMF, OECD, IHS Markit 등 자료 종합]

파나마. 수주 기여도 및 종합 전망

(수주 기여도) 최근 10년 평균 수주 기여도는 0.9% 수준임

[단위 : 백만불]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국가 수주액(A)	780	17	0	0	0	652	0	0	-171	2,849	4,127
해외건설 수주액(B)	59,144	64,881	65,212	66,010	46,144	28,192	29,006	32,113	22,319	32,506	445,527
해당 국가의 수주 기여도(A/B)	1.3%	0.0%	0.0%	0.0%	0.0%	2.3%	0.0%	0.0%	-0.8%	8.8%	0.9%

[출처 : ICAK]

(종합 전망)

구분	Economic Risk (‘20, ‘21년 경제성장률)	Pipeline Size (GDP 대비 건설시장규모 비중)	Risk Assessment (단기, 장기 Score)	수주 기여도 (최근 10년 평균 수주 비중)	2021년 시장규모	2021년 성장률	CAGR (‘17~‘21)
파나마	Positive (-7.0%, 4.2%)	Positive (57.0%)	Positive (4.1, 4.1)	Negative (0.9%)	351 억불	3.2 %	1.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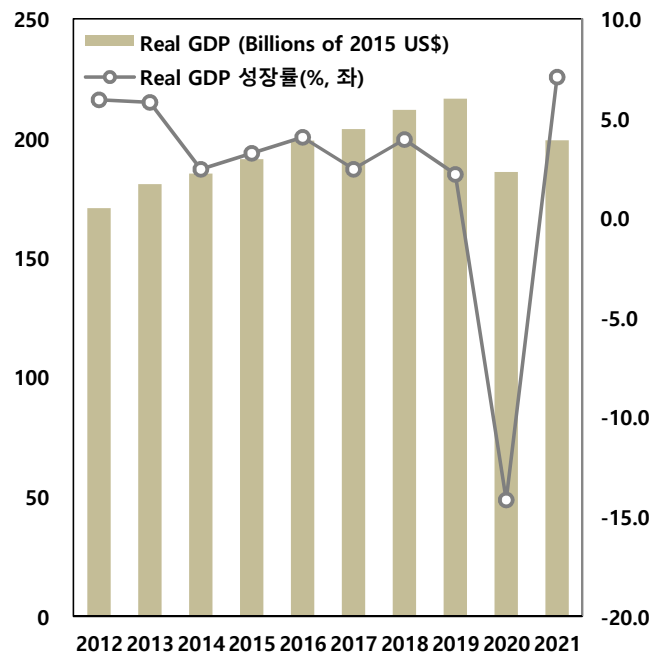
➤ 양호한 경제성장, 57% 수준의 GDP 대비 건설시장 비중, 세계건설시장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의 리스크 지수는 상당히 안정적인 시장임을 나타냄. '20년말 대규모 수주 경험을 이어가면서, 교통 및 수력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요구됨

➤ 메트로, 도로, 발전 플랜트 사업 발주 증가 기대

(경제) '20년 7%대 역성장, '21년 7%대의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한 소비 증가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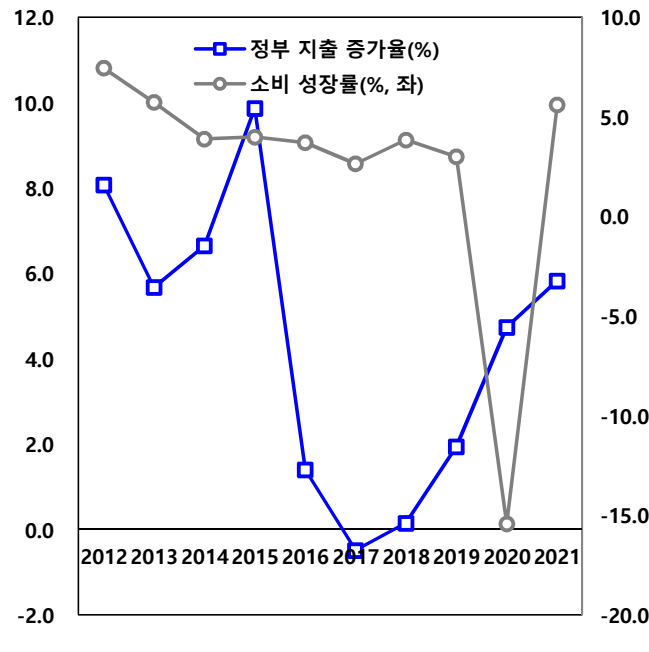
- '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가 있었으나, '20년 12월 중순부터 경제재활성화 4단계 계획 (Reactivación económica fase1-4)에 따라 경제 활동이 점진적으로 재개되고 있음. 이에 따라 '21년 GDP 성장률은 7.1%로 전망
- 정부 지출 증가율은 '21년 5.8%, 소비 성장률은 5.6%로 점진적인 회복이 기대됨
- 고정 투자 성장률은 코로나19로 '20년 -28.2%, '21년 11.6%를 기록할 전망. 본격적인 경제 회복 및 투자 확대가 기대되는 시장임. 실업률은 7.3%로 감소할 전망

생산 지표(Real GDP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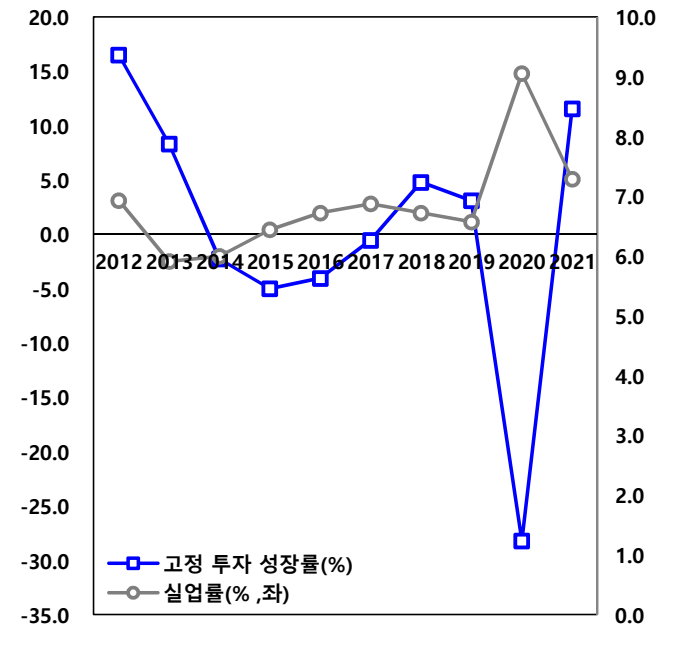
[출처 : IMF, OECD, IHS Markit 등 자료 종합]

정부 지출 증가율 및 소비 성장률



[출처 : IMF, OECD, IHS Markit 등 자료 종합]

고정 투자 성장률 및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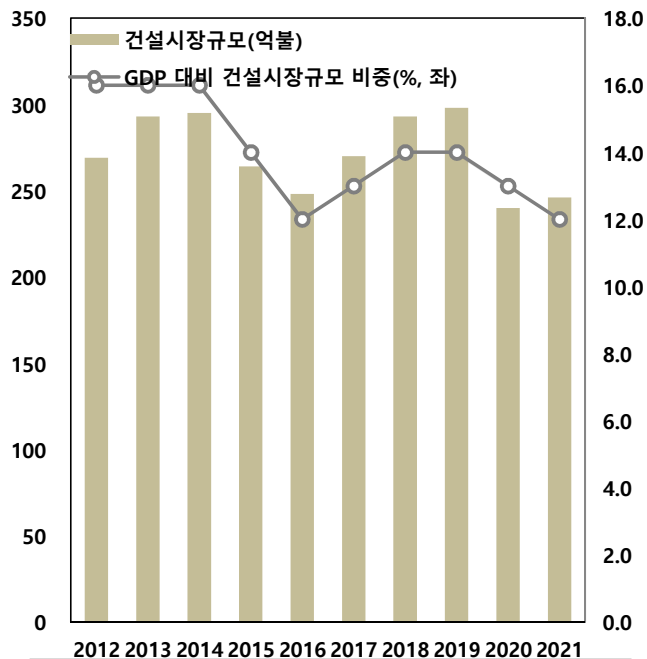


[출처 : IMF, OECD, IHS Markit 등 자료 종합]

(건설시장규모) 최근 10년간 GDP 대비 건설시장 비중(16→14→12%), '21년 246억불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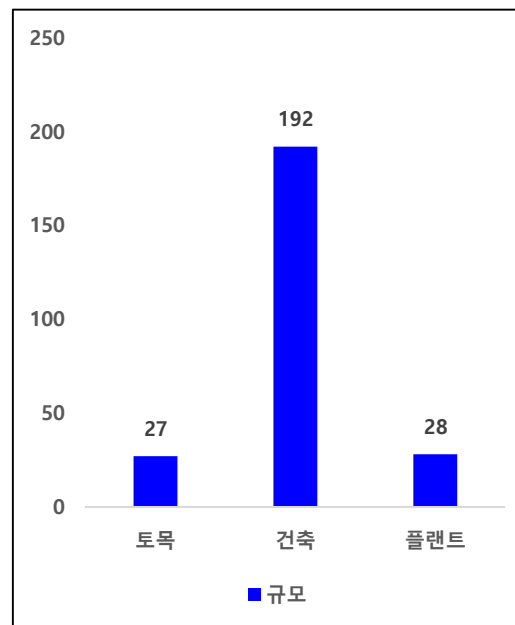
- 지속적인 인구증가 및 점진적인 경제 성장이 기대되는 등 잠재력이 내재된 시장으로, '20년 240억불 대비 2.9% 증가한 246억불로 성장 기대
- 주거용 건물 등 건축이 192억불(78.0%), 발전 등 플랜트 20억불(11.4%), 교통 등 토목이 27억불(11.0%)의 규모가 예상
- 건설시장의 성장 동력(driver) 중 하나인 인구는 2012년 대비 13.1% 증가한 33.4백만명 수준임. 도시화율도 79% 수준으로 향후 지속 증가가 예상됨

GDP 대비 건설시장규모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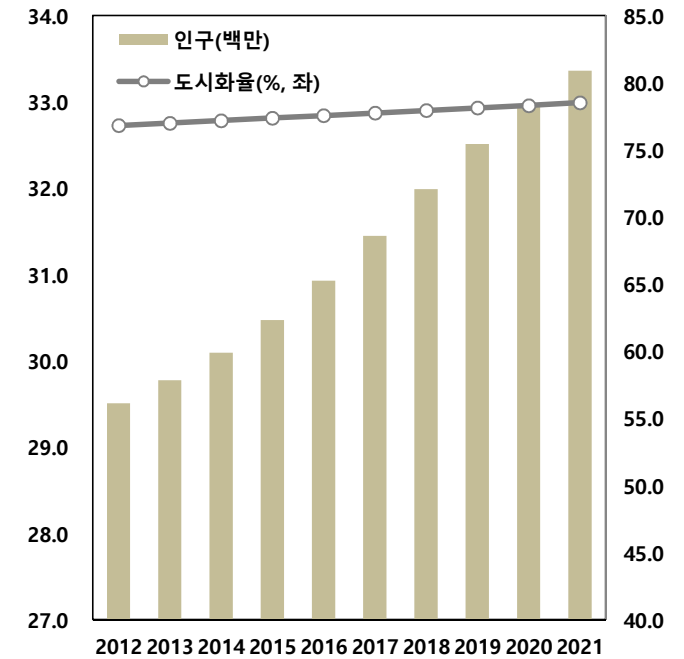
[출처 : IMF, OECD, IHS Markit 등 자료 종합]

주요 공종별 건설시장규모



[출처 : IMF, OECD, IHS Markit 등 자료 종합]

인구수 및 도시화율 (Construction Drivers)



[출처 : IMF, OECD, IHS Markit 등 자료 종합]

(공종별 건설시장규모 추이)

[단위 : 억불]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토목	31	34	34	31	28	30	33	34	27	27
교통인프라	30	33	33	30	27	29	32	33	26	26
수처리	1	1	1	1	1	1	1	1	1	1
건축	209	229	230	206	196	211	229	232	187	192
주거용	199	217	218	197	187	202	218	221	179	184
오피스	4	5	5	4	4	4	4	4	4	4
상업시설	5	5	5	4	4	4	5	5	3	3
공공시설	1	2	2	1	1	1	2	2	1	1
플랜트	30	31	32	26	25	28	32	32	26	28
에너지	27	28	29	23	23	26	29	29	23	25
유틸리티	1	1	1	1	1	1	1	1	1	1
통신	1	1	1	1	0	0	1	1	1	1
정유시설	0	0	0	0	0	0	0	0	0	0
교통장비 등	0	0	0	0	0	0	0	0	0	0
화학시설	0	0	0	0	0	0	0	0	0	0
전기	0	0	0	0	0	0	0	0	0	0
음식료 공장	0	0	0	0	0	0	0	0	0	0
기타	1	1	1	1	1	1	1	1	1	1
총 시장규모	269	293	295	264	248	270	293	298	240	2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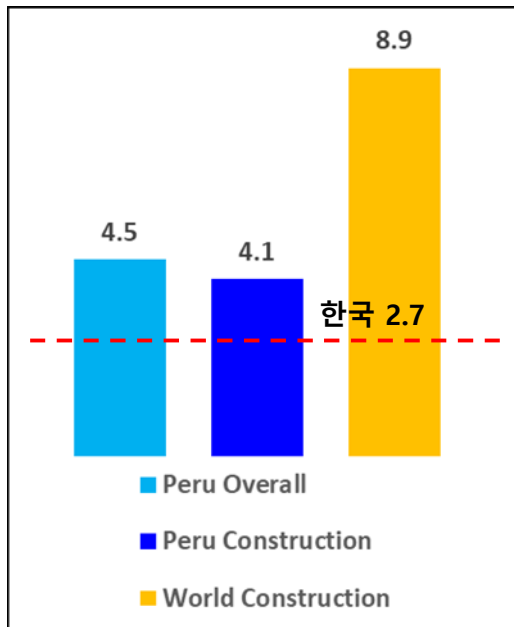
[출처 : IHS Markit, ICAK 등 자료 종합]

페루. Risk assessment

단기, 중기 측면에서 Risk Score는 양호하나, 언어 등 문화 차이, 현지 및 스페인 기업의 경쟁력에 대한 준비가 절실한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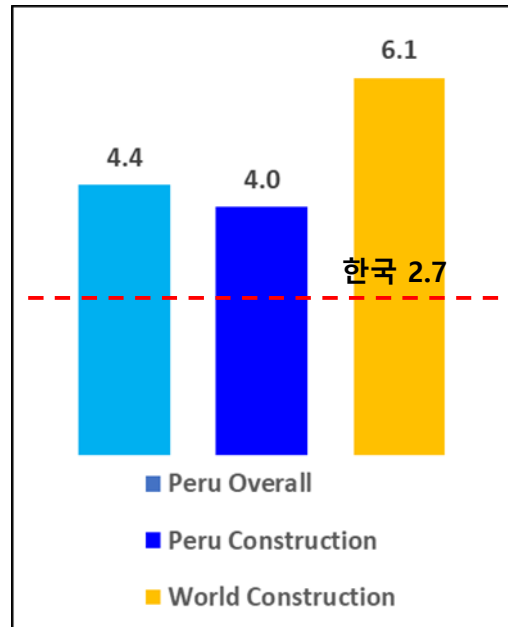
- 단기(12개월) Risk Score는 4.1로 세계건설시장(8.9)보다 양호한 수준
- 중기(5년) Risk Score도 4.0로 세계건설시장(6.1)보다 양호한 수준
- '12년부터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 적자가 지속되다, '20년, '21년 흑자로 전환함. '21년 GDP 대비 흑자는 0.6% 수준(한국의 '21년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 전망치는 3.9%)
- GDP 대비 외채(Total Foreign Debt) 비중은 '12년 이후 25~40% 사이에서 등락을 하고 있으며, '21년에는 28.6% 수준으로 예상됨(한국의 '21년 GDP 대비 외채 비중 전망치는 25.8% 수준)

단기(12개월) Risk Sc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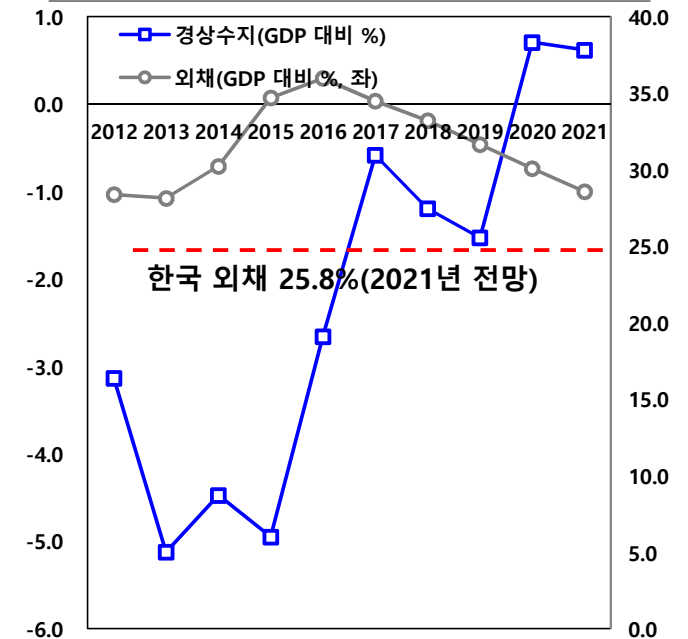
[출처 : IMF, OECD, IHS Markit 등 자료 종합]

중기(5년) Risk Score



[출처 : IMF, OECD, IHS Markit 등 자료 종합]

GDP 대비 경상수지, 외채 비중 추이



[출처 : IMF, OECD, IHS Markit 등 자료 종합]

페루. 수주 기여도 및 종합 전망

(수주 기여도) 최근 10년 평균 수주 기여도는 0.1% 수준임

[단위 : 백만불]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국가 수주액(A)	4	1	15	243	-19	2	6	14	63	11	340
해외건설 수주액(B)	59,144	64,881	65,212	66,010	46,144	28,192	29,006	32,113	22,319	35,131	448,152
해당 국가의 수주 기여도(A/B)	0.0%	0.0%	0.0%	0.4%	0.0%	0.0%	0.0%	0.0%	0.3%	0.0%	0.1%

[출처 : ICAK]

(종합 전망)

구분	Economic Risk (‘20, ‘21년 경제성장률)	Pipeline Size (GDP 대비 건설시장규모 비중)	Risk Assessment (단기, 장기 Score)	수주 기여도 (최근 10년 평균 수주 비중)	2021년 시장규모	2021년 성장률	CAGR (‘17~‘21)
페루	Positive (-14.1%, 7.1%)	Positive (12.0%)	Positive (4.1, 4.0)	Negative (0.1%)	246 억불	2.7 %	-2.2 %

- 양호한 경제성장, 12% 수준의 GDP 대비 건설시장 비중, 세계건설시장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의 리스크 지수는 상당히 안정적이고 양호한 시장임을 나타냄. 페루 친체로 공항 PMO사업(‘19년 수주)과 같이 G2G 형태의 사업 발굴 전략이 요구됨

- 메트로, 도로, 공항, 항만 사업 발주 기대



감사합니다.